

《막스 베버, 그의 학문과 만나》 우수학술도서 선정

손보민 기자 sonbomin1025@khu.ac.kr

박영신 고항석좌 교수의 「막스 베버, 그의 학문과 만나」가 지난 7월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이를 포함하여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이 출판한 책 3권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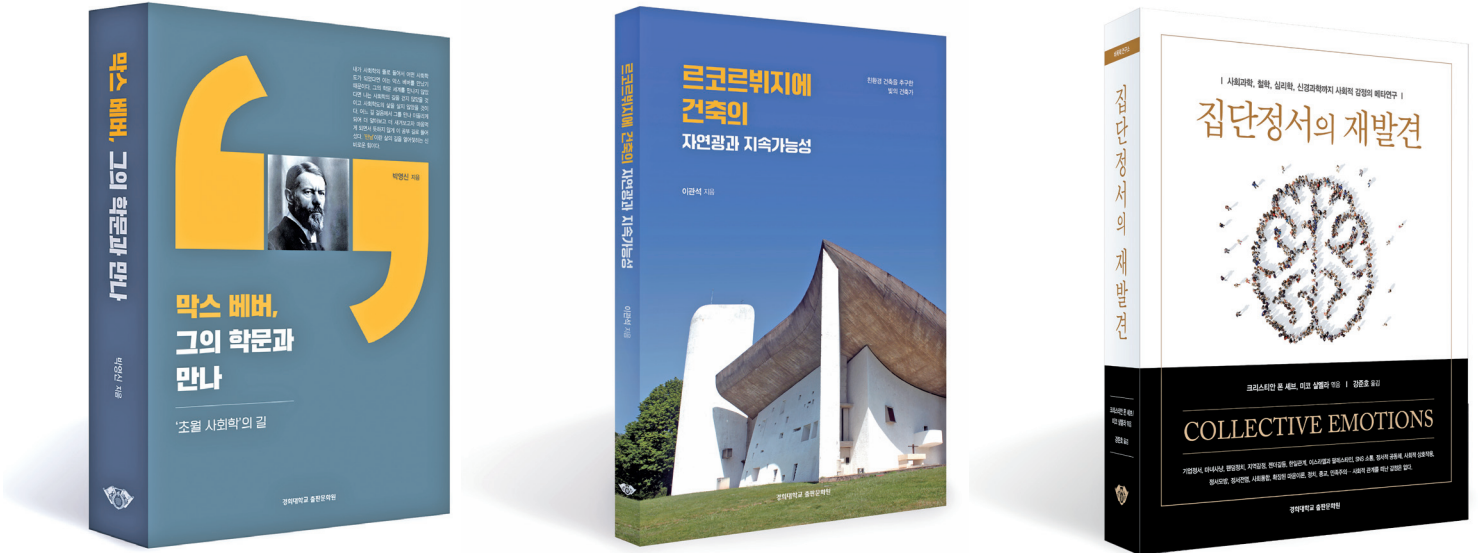
막스 베버, 그의 학문과 만나

「막스 베버, 그의 학문과 만나」에서는 초월 영역의 힘에 심취한 박영신 교수가 끊임없이 베버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는다. 사람됨의 뜻과 인간다움의 품, 삶의 뜻과 삶에 힘을 불어넣는 윤리 지향성, 삶의 모습과 그 너머의 가능성 등 베버와 나눈 이야기는 한둘이 아니었다.

박영신 교수는 베버와의 대화를 통해 사회학자로서의 됨됨이를 빛낼 수 있었다. 그리고 틈틈이 대화를 기록해 논문으로 남겼다. 이 대화 기록을 모아 엮은 책이 「막스 베버, 그의 학문과 만나」이다. 원로 사회학자가 베버와 함께 오랫동안 걸은 공부의 길이 이 논문집에 고스란히 펼쳐져 있다.

책의 저자인 박영신 교수는 청년 시절 우연히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읽었고, 이는 그의 꿈을 바꿨다. 그는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그 사회학자의 학문 세계에 빠져들었다.

주된 관심도 교육학이나 종교학에서 사회학으로 옮겨갔다. 결국 미국에서 사회학을 공부해 박사 학위를 받고 평생 사회학자의 길을 걸었다.



차례대로 <막스 베버, 그의 학문과 만나-박영신 저>, <르코르뷔지에 건축의 자연광과 지속가능성-이관석 저>, <집단정서의 재발견-강준호 옮김>이다. (사진=출판문화원 제공)

“

박영신 교수는 베버와의 대화를 통해 사회학자로서의 됨됨이를 빛낼 수 있었다.

”

르코르뷔지에 건축의 자연광과 지속가능성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르코르뷔지에 건축의 자연광과 지속가능성」이다. 저자 이관석 교수는 위생과 환경을 고려한 르코르뷔지에의 자연 친화적 건축을 조명한다. 20세기 위대한 건축가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작품을 다룬 책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르코르뷔지에가 자연광을 통해 친환경 건축을 추구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르코르뷔지에 건축의 자연광과 지속가능성」을 르코르뷔지에의 자연 친화적 건축을 집중 조명한 최초의 책이다. 저자 이관석 교수는 건설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르코르뷔지에의 정신을 이어받은 시리아니 교수로부터 사사했다.

저자가 생각하는 르코르뷔지에의 자연광은 단순히 특정 장소를 밝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용자의 위생을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와 효용성이 있었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오늘날의 건축이 추구하는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건축을 20세기 초에 이미 르코르뷔지에가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은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이론들을 이전과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집단정서의 재발견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집단정서의 재발견(Collective Emotions)」이다. 이 책이 출간된 시점인 십 년 전에는 집단정서가 무엇인지, 개인

의 정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그 주관적 경험의 성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분석이 드물었다. 마찬가지로 집단정서의 개인적/사회적 기능의 밑바탕에 있는 심리학적/신경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없었다. 나아가 해당 메커니즘의 형성과정과 표현과정을 살피는 경험적 연구도 거의 없었다. 「집단정서의 재발견」은 이러한 단초를 제공하는 거의 최초의 책이다.

「집단정서의 재발견」을 통해 우리는 정치/사회/문화 속 여러 문제, 예를 들어 지역감정, 팬덤정치, 마녀사냥, 젠더갈등 속에 숨어있는 집단정서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집단정서에 관한 오래된 여러 개념적/이론적 물음을 다루며, 집단정서를 개인정서에 관한 방대한 연구와 연결한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